



화두(話頭)와 코드



김정자
언론인·본지는설위원

20세기 막바지에 선가(禪家) 용어인 '화두'가 세속에서 유행 어처럼 쓰였다면 21세기 초입 바로 오늘에 '화두'를 대신 할 만한 유행 단어는 '코드'다. '코드'의 의미는 규약, 부호, 기호체계 등 여러 가지다. <만행, 허버드에서 회계사까지>를 쓴 현각 스님은 '오직 모를 뿐' 등 선가적 화두를 쏟아내는 승산스님의 설법을 듣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온 것들과는 '코드'가 다르다"고 중얼거리며 불교에 귀의했다고 밝힌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중심 사회의 서양적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은 코드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싶다. '토론'이라는 말도 '화두'처럼 뜨고 있다.

토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코드 하나가 토론의 전체가 될 수 없다. 물론 하나의 코드를 보다 탄탄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코드끼리 토론을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고루 통합 할 목적이라면 토론에는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코드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은 영원히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어서 토론은 이 같은 의견 주장 견해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마침내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지 처음부터 어느 하나의 코드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자세는 자칫 편견과 독선으로 빠지게 한다. 통합이라는 의미에서라면 아무래도 '코드'는 '화두'라는 단어 아래 개념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코드'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고 싶다면 이 시대에도 코드보다 '화두의 참구'를 권하고 싶다.

한강 둔치를 걸어보자. 콘크리트 호안 너머 강물이 넘실대지만 발 옮길 적마다 먼지가 풀썩인다. 분명히 강변이지만 개구리 한 마리 없는 사막이다. 오랜 세월 굽어져 흐르며 온갖 생물이 어우러졌던 강줄기를 불도저로 가로막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콘크리트로 마감하며 직선으로 획일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강물 위로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홍수가 날 적마다 중계 카메라가 물리는 중랑천을 보자. 현재는 민방할 지경으로 말랐고 오염된 바닥은 코를 쥐게 한다. 역사와 문화를 안고 흘러온 중랑천은 홍수 나면 넘치고 비 없으면 마르는 한낱 도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랑은 작은 비도 감당 못하고 빗물 뒤에 오물만 남긴다. 중랑천을 비롯한 우리 땅 곳곳에 직선화된 강들이 다 그 지경이다. 때를 기다리다 한꺼번에 내버리는 공장의 폐기물까지 포함된 오물이 물살이 잠잠해진 바닥에 켜켜이 내려앉은 우리의 강들은 홍수와 가뭄에 유난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고 앞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



물부족 해결, 댐 건설 능사 아니다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물부족 해결, 댐 건설 능사 아니다

을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댐을 지어야 먹고사는 조식과 대개 무관하지 않다. 과연 어떨까. 집중 호우가 노도와 같이 댐에 흘러들어 바닥에 오물을 가라앉힌 이후의 대책은 무엇일까.

다행이라 해야 하나. 무모한 지방행정으로 아름다운 보길도의 역사와 문화가 수장될 뻔했는데, 단식에 들어간 한 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댐 계획이 저지되었다고 한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움이 없는 세상은 누구나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시인의 아름다운 분노는 주민들의 심연을 일깨웠지만 아직 마음

이 놓이지 않는 건 왜일까.

원도군수는 관광객 유치에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 우리는 돈과 소비에 얽매인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객 유치나 개발로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연 그대로 아름답던 시절, 주민들은 지금보다 가난하고 불행했을까? 그릇도 반찬도 옷도 집도 읍내도 단출했던 시절, 물 소비가 많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더 깨끗했는데. 누군가 물 전쟁을 경고한다. 물 분쟁은 지역

을 넘어 국가 단위까지 증폭될 것을 우려하는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환경단체는 녹색댐을 주장한다. 상류의 숲을 자연스럽게 보전하거나 나무를 많이 심어 산의 보습력을 높이는 방식, 즉 댐 없이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빗물을 포함한 물의 재사용을 촉구한다. 정화처리한 물을 버리지 말고 허드렛물로 재사용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소비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거대한 세탁기를 한없이 만족시키는 의복가짓수를 대폭 줄이고, 물 소비가 많은 식습관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남겨도 다시 끊어 먹을 수 있는 찌개를 끓이는 것이 아니라, 사육에서 도축 포장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물 소비를 요구하는 육가공이나 낙농제품을 덜 먹자는 말이다. 그러면 물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요는 소비자의 각성을 발판으로 수요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공급 늘리기, 댐 건설은 끝없는 물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의 해'를 맞으며 모두가 새겨야 할 일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역사민속학회, 단체종목 현황과 대안 모색 발표회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30% 원형훼손

'무형문화재 단체 종목' 56개 중 약 30%가 원형이 훼손되거나 체계적인 분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가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전승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를 벌인 결과다. 역사민속학회는 지난 7일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현황과 대안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편집자>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현주소

주강현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애초에 잘못 지정돼 원형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있는 종목이 17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지시줄다리기, 은산별신제, 파리정악 및 대취타, 안동차전놀이, 위도떡볶이 등은 지정 당시에 원형이 훼손됐거나 원형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종목들이다. 현재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제와 줄다리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으나 두 행사는 원래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졌던 것을 무리하

지정 과정과 보존·전승의 제문제

이필영 (한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지금까지의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기본 문제로, 임기응변식의 심의와 지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체 무형문화재의 불균형과 비체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응변이란 전체 무형문화재의 균형과 체계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혹은 간헐적으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종목에 대해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전체 무형문화재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중

잘못된 지정으로 부작용·폐해 많아

게 통합했다. '떡볶이'는 원래 '떡볶'이나 78년 전국민속예술평의회에서 참가자들이 '놀이'로 바꾼 것이다. 무형문화재 84호인 '농요' 중에서도 고성농요와 예천농요는 하위 단위로 분류된 반면 남도농요는 51호로 따로 지정돼 있는 등 분류 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문화 성격이 강함에도 보유자를 개인으로 지정해 이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경우다.

표준화된 분류로 균형있는 정책편야

목들은 어떠한 분류체계 안에서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무형문화재 정책은 그 심의 및 지정, 그리고 새로운 종목 발굴 및 지정 권고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는 무형문화재의 표준화된 분류체계 안에서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무형문화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이다. 그 동안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히 취급되었던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대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달래는 달마도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교문화예술대학. 30년 넘게 달마도 그리기에 매달려 온 범주스님은 이날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돕기 달마도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스님은 퍼포먼스를 통해 그런 대형 달마도와 달마선원에 보관 중인 달마도를 팔아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군축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시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34.2km)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연주암, 삼막사, 대성사 등 사찰이 많은 관악산과 우면산을 관통한다고 한다. 제2의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길 고대한다.

종교법인 광명사 설법대학 제 1기 학인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아사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불교응변인협회가 이러한 민족불교의 의지와 신념을 응변으로 밝히고 실천해온지 33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후원과 협조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세계불교도법륜기 수여 전국응변대회」를 개최하여 600여개가 넘는 장관상과 3부요인 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 협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장표창을 비롯하여 1,000만 그루 식수의 나무를 적극후원하고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연사들이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속,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와 문화창달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은 본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응변인협회」는 드높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가지 있는 삶의 추구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설법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법대학에서는 삶과 생활의 지혜를 열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불교교리는 물론 응변, 설법, 서예, 동양화, 다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차적으로 일반교양의 교과 과정도 폭넓게 개설하여 전통적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성인의 인격도야를 위한 배움의 장에 불자님과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서기2003년) 3월

대한불교응변인협회 회장
(종교법인)설법대학 학장

표 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불기 2547년 3월 1일 ~ 3월 30일 까지 ○ 개 강: 2003년 4월 12일(토) 오전 10:00 	
모집내용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반 50명 ○ 초·중·고반 50명 ○ 방송 성우반 20명 ○ 서예 사군자반 20명 ○ 정치 지망생반 ○ 스님 특별반 ○ 사진반 ○ 다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교사 자격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대학 진학 특기장학생 ○ 성우 지망생 ○ 미술전공 희망자 ○ 학원설립을 원하는 분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사본 ○ 증명사진 3매 ○ 스님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매주 토·일요일 ○ 오전 10:00~12:00 ○ 장 소: 광명사 1층강의실

교수진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자원 스님 대한 불교응변인 협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응변인 협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응변인 협회장 국제포교사 한마사 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계원 KBS 성우 ○ 이중태 대한응변인 협회 전 회장 응변부대 대통령상 수상자 ○ 손은봉 다산정치학회 회장 응변부대 대통령상 수상 ○ 김수용 대한불교응변인협회 사무총장 전국응변대회 심사위원장 ○ 유인배 선거유세위원 4회연속 당초직 연설, 종교부위원장

교수진(서예·동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춘 허름 (단원, 전통, 한국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원 진주산업대 세생명광명회 대표 ○ 이치란 서계불교도(WFB,WBY) 한국본부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교무처장 국제포교사 ○ 이우택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저서: 나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미국 황제 동양 한의과 대학 명예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설법대학
대한불교응변인협회 총본부 부설 Tel. 02)732-5509, 736-1895, 735-1896 / FAX. 02)723-4350